

. 작성부서	경영지원본부 시장시스템재구축TF		
. 담당자	부장 : 최길선(☎ 3774-9330) 팀장 : 이창진(☎ 3774-9331)		
. 배포일	2014. 2. 25(화)	. 배포부서	홍보부 (☎ 3774-4081 ~ 4085)

※ 이 자료는 **2월 26일(수) 조간부터 취급**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3월 3일(월) EXTURE+(新시장시스템) 가동

1. 추진경과 및 가동일자

- 한국거래소(KRX, 이사장 최경수)는 '11년 4월 “자본시장 IT혁신 로드맵”을 발표하고, 총 26개월(선도개발 8개월 포함)의 개발일정으로 EXTURE+(新시장시스템)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,
- 6개월에 걸친 회원사테스트와 모의시장운영('13.9월~'14.2월) 및 2차례의 이행리허설('14.2.15, 2.22)을 통해 모든 점검과 이행훈련을 완료하고,
- 2일간(3.1~3.2)의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3월 3일(월) 가동할 예정

2. EXTURE+ 추진성과

- (기술혁신) 초고속 시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리눅스(Linux) 시스템을 채택하는 등 혁신적 기술변화 선도
 - 주문접수 속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비동기(Async) 주문방식 채택
 - x86 기반 Linux서버, 초고속 네트워크 등 최신 기술을 대폭 적용
- (성능개선) 이를 통해 舊시스템(EXTURE) 대비 매매체결 처리성능은 285배(20,000 μ s→70 μ s이하), 초당 처리건수 2배(9,000건→20,000건) 및 일일 처리용량을 2배(8천만건→16천만건) 이상 획기적 개선
- (확장성제고) 서버 추가만으로 용량 확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거래량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이 가능
 - 가동 시는 現 시장규모에 맞게 구성하였으나, 시황 급변 시 2주 이내에 확장 가능

- (안정성제고) 초고속시스템 전환에 따른 선진거래소들의 장애 사례 등을 교훈삼아 EXTURE⁺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서버를 3중화(舊 2중화)하고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메카니즘 탑재
- (기술력확보) 매매체결 핵심기술(초고속 미들웨어, 메모리 DB 등)을 자체 개발*함으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
 - * Nasdaq, NYSE, LSE 등 극소수의 거래소만 자체 개발
- (효율성제고) 다운사이징을 통해 인프라 비용을 舊시스템 대비 67% 수준으로 낮추고, 호가건당 개발비용을 1/3수준(1020원→340원)으로 절감
- (유연성강화) 매매를 조합을 통해 단기간에 新시장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등 시스템 유연성이 높아 신시장 개설 및 시스템 수출에 유리
- (회원사 비용 최소화) 자본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회원사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범위를 조정

3. 기대효과

- (고객서비스 개선) EXTURE⁺ 가동을 통해, 고객의 대량 주문 시 지연구간이 없도록 메시지 송수신 체계를 개편하고,
 - 회원사에서 주문실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(Kill-Switch)도 제공
 - 다만, DMA와 HFT 등 시스템트레이딩 투자자의 과도한 대량호가를 통제할 수 있는 과다호가제한 기능도 탑재
- (IT수출 확대) EXTURE⁺를 통해 IT수출 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한국형 자본시장 확산의 전기 마련 기대
 -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하게 되어 IT수출의 가격경쟁력 확보
 - 이미 다수의 해외 거래소가 EXTURE⁺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
- (시장활성화) 처리속도 향상, 신속한 신상품 수용 등 다양한 투자자 니즈를 수용하여 시장의 유동성 제고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

※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krx.co.kr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